

# 得糧灣과 海倉灣의 干潟地 開墾

## The Reclamation of Tidal Flats in the *Deukryang* and *Haechang* Bay Areas

洪錦洙(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kshong85@korea.ac.kr)

만과 반도가 교차하는 남해안의 득량만과 해창만 간석지는 일제시대와 경제개발기에 농경지로 개간되었다. 본 연구는 전라남도 보성군 得糧灣과 고흥군 海倉灣 일대에서 시행된 간척사업의 전개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문헌자료, 지도, 통계 등을 분석하고 현지답사에서 관찰과 면담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종합한 결과이다. 득량만은 1931년 공유수면매립 허가가 내려진 지 8년만에 계획한 공정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으며 보성강발전소와 일체로 개발된 점이 특징이다. 간척사업은 대기업 寶城興業株式會社가 사업권을 인수하면서 탄력을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高興郡 주도로 진행된 해창만 간척사업은 1963년에 착수하여 1993년까지 계속되었다. 두 사업은 시간적인 공백은 있었지만 방조제 공사에 제도인력차와 선박이 동원되고 다수의 인력이 참가하였으며 빗물을 이용한 담수제염이 행해진 공통점을 내포하고 있다. 일본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산미증식전략의 일환으로 전개된 득량만간척은 보성강을 유역변경하여 발전하고 방수된 물을 관개수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지만, 해창만의 간석지개발은 자금 및 인력난과 함께 추진력 부족으로 공사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해안평야의 운영은 소작인과 임차농을 구성원으로 하는 간척촌의 성립을 초래하였다.

간석지 개간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는 촌락사회 주도세력의 교체, 지역중심지의 이동, 어촌기능의 쇠퇴, 경관의 변화를 수반하였다. 득량만의 경우 구한말에서 일제시대를 거쳐 농촌근대화 단계에 이르는 동안의 사회적 변화를 읽을 수 있었다. 지리적인 측면에서는 개간 이전의 주요 취락이었던 海坪里와 松谷里를 대신해 得糧驛前의 五峰里, 禮堂驛과 寶城興業 本社의 소재지인 禮堂里가 새로운 지역중심지로 부상하였던 사실이 주목된다. 생활양식의 전환은 海倉灣干拓地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견고한 방조제가 완성되면서 지역간 이동이 편해졌으며, 지역 특산물로서 전국적으로 알려진 石花의 양식이 불가능해졌다. 평야 안쪽에 갇히게 된 섬과 헤드랜드, 지명으로만 확인할 수 있게 된 과거의 포구, 곳곳에 자리한 양·배수장과 골짜기 입구의 대규모 저수지 등의 경관은 소금과 수산물 생산에 분주했던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이처럼 간석지 개간에 따른 해안환경의 변화는 촌락사회의 구조적 변동으로 이어졌다.